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19년



White Sands : Photo by Rev. Yongsub Sim
(St. Mark's UMC, Midland TX)

관련기사 5페이지
화이트 샌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나?

한인회 코너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민명희
뉴멕시코한인회 회장

김치란 우리 삶의 몸을 달래고 삶을 달래며 마음을 달래는 밥상의 주인입니다.

이번 한국방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땅을 밟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한국음식을 대하면서 눈 가득, 가슴 가득, 입안 가득 행복함을 느꼈으며 한식 밥상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키우고 돌아왔습니다.

밥상 철학이 담긴 건강식 음식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을 접하면서 그곳에는 늘 김치 종류가 빠지지 않은 것을 보고 한국인으로서의 깨우침을 받기도 했죠. 김치는 내 몸과 마음을 달래는 힐링의 음식이며 밥상에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한인회주최 제12회 김치 축제를 기획하면서 알버커키 커뮤니티의 주민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국 김치에 더

목차 CONTENTS

- 한인회 코너 | 뉴멕시코한인여러분! 민명희 : 1
- 한인회 소식 | 김치축제광고 : 2
- 한인회소식 | 재외국민교육지원/세계한인여성대회 : 3
- 지역소식 | 로스알라모스 높은 다리?/원주민의 날: 4
- 한인회 소식 | 화이트샌드공원/Oliver Kuang암벽등반: 5
- 과학소식 | 우주 인터넷 경쟁 :6
- 지역소식 | 뉴멕시코 대학무상교육?/커트랜드기지 :7
- 수필 | 걷기 이정길 : 8
- 칼럼 | 다국적교회 우리교회 | 김기천 : 9
- 교회소식 | 갈릴리 장로교회 김민순 목사소개 | 김민순 :10
- 설교 | 치유가 있는 교회 | 정용치: 11
- 수필 | 바위틈 씨앗 한 알 | 김은희 :13
- 편지 | 사랑하는 알버커키 형제자매님께 | 나정용: 14
- 선교/수필 | 나바호선교이래희: 15
- 수필 | 아름다운 퇴장을! | 나정자 : 16
- 영어상식시리즈 | 영어이야기(5) | 이상목 : 17
- 건강상식 | 치과 이야기(6) |윤자정 :18
- 선교지 소식 | Mission Together News |이성일 :19
- 수필|덤으로 사는 인생살이 더 많이 웃으며 살리라 |김준호 :20
- 광고 |뉴멕시코 한인 교회 안내:21
- 광고 |뉴멕시코 한인 업소 안내:22-23

제**12**회 뉴멕시코주

김치 축제

시간: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 3시)

장소: 앨버커키 가든센터

Albuquerque Garden Center

(10120 Lomas Blvd NE, ABQ, NM 87112)

- ❖ 다양한 종류의 김치(샘플 맛보기 및 판매)
 - ▷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백김치 등
- ❖ 여러가지 한국 음식(\$10)과 음료 및 후식
 - ▷ 불고기, 비빔밥, 잡채, 만두 등
- ❖ 한국 전통춤과 다채로운 공연
 - ▷ 한국학교 어린이 난타 공연 및 김치송



본 행사에 후원 또는 기부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info@kaanm.com 이나 505.271.1777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멕시코주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한인사회 소식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1 페이지에서 계속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과 우리의 미래와 한국을 이야기하는 대화에서 김치 주제가 언급되면 그들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알고 맛봄으로 인해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가 스며들 수 있게 됨을 저희는 그들의 눈빛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접해 있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두 팔을 벌려 뉴멕시코의 자연이 주는 위로와 희망을 안아보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수고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며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면서 동서양의 차원을 넘어 김치 섭취를 활성화하며 밥하기 싫을 때, 설거질 하기 싫을 때, 지친 심신이 피로할 때,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내일을 더욱 잘살아 보자고 다짐하며 희망을 안고 사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며 우리들의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정 많은 코리언이 됩시다.

“우리 고유의 음식 김치가 세계로 퍼져나간다. 널리 널리 퍼 저라”

금년의 김치 축제는 더욱 넓고 편한 장소를 빌려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Eubank와 Lomas가 만나는 코너 남서편에 있는 Los Altos Park 공원에 있는 가든 센터에서 11월 16일 김치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지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교과용 도서 등 지원대상관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1946년 일본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해외 15개국에 32개 재외한국학교를 세웠다. 재외한국학교에 총 1만3천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국내와 달리 재외한국학교 환경은 열악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제6회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

전 뉴멕시코 한인회장 조규자씨는 지난 10월 5일에서 7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2019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를 주최했다. 세계한인 여성회장 협의회의 대표로 박양숙씨와 공동으로 총재직을 맡은 조규자씨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회식에서 “협의회가 세계 한인여성들과 모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해지길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했다.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는 해외 여성한인회장, 여성한인단체장의 모임이며 정회원과 일반회원을 포함하면 현재 27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협의회는 개회식 다음 날인 6일부터 이틀간 강릉시를 방문하고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었다.

조규자 총재는 앞의 두 대회를 갖기전 10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재내외 한민족 협력 비전 포럼에도 연사의 한사람으로 참석했다.

기사 발취: Worldkorean.net, “조규자 세계 한인여성회장 협의회 공동대표총재, “해외지회, 내년에 20개로 늘리겠다” 2019.10.14. ■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8, 19대 국회에도 발의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안민석 의원이, 지난 2018년 심재권 의원의 법률안을 교육위원회가 통합 조정해 지난 8월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재외동포들은 그동안 많은 이들의 무관심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정체성을 배우고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애쓰고 고생하신 한국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출처 : 월드코리아뉴스(<http://www.worldkorean.net>) ■

로스 알라모스로 가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세워지나?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와 산타페 및 하이웨이 I-25와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다면 White Rocks 근처 리오 그란데를 가로지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다리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관리들은 지난달 산타페 북쪽에 있는 포자키 (Pojoaque)에서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신축 건물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모인 700 명의 하청업자들에게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도로 건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가능한 경로를 표시한 도로 시안 지도를 공개했다. 제안하고 있는 도로는 Los Alamos에서 알버키키 또는 산타페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해 줄 것이라고 했다.

새 도로 건설 계획안은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는 다양한 장소를 제시했다. 이 계획안 중에서 한 가지 옵션은 Montoso Peak Alternative라고 이름 지은 옵션인데 이는 리오 그란데 (Rio Grande) 강 위에 1,020피트 높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옵션을 채택한다면 이 다리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될 것이다. 콜로라도의 아칸소강 (Arkansas River)을 가로지르는 로얄고지다리 (Royal Gorge Bridge)가 지금까지 가장 높은 다리로 그 높이는 955 피트인데 이 다리보다 65피트 더 높은 다리가 될 것이다.

Montoso Peak 다리가 건설된다면 타오스 북쪽에 있는 관광명소 중 하나인 Rio Grande Gorge Bridge보다는 훨씬 높은 인기를 얻는 새로운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ontoso 다리의 길이는 2,790 피트로 계획되어 있고 Rio Grande Gorge Bridge 다리의 길이는 약 1,300 피트이다.



White Rocks 근처의 계곡을 흐르는 Rio Grande강

1990 년에 작성된 계획안을 보면 또 다른 옵션으로 치노

메사Alternative로 남 북 두 방향으로 두 개의 다리를 제안했는데 높이는 리오 그란데 강 수면에서 약 810피트, 길이는 3,113피트 인 것으로 알려졌다.

Mortandad 및 Sandia 협곡으로 알려진 또 다른 경로의 도로 계획안은 460 또는 290피트 높이의 낮은 다리를 제안하고 있다.

참조 기사: A tall order: Bridge for Los Alamos road could be nation's highest, Albuquerque Journal, 9/15/2019 by Mark Oswald ■

콜럼버스 데이는 이제 '원주민의 날'

뉴멕시코주는 처음으로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를 원주민의 날(Indigenous Peoples Day)로 교체하여 축하했다.

알버키키에 있는 인디언 푸에블로 문화 센터에서는 10월14일 월요일 아침 여러 뉴멕시코 부족의 전통 무용 행사를 개최했다. 부족 지도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순서도 가졌다. 이 행사에는 뉴멕시코의 23개 푸에블로족과 부족의 지도자 및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월요일 행사가 열린 푸에블로 문화센터에서 Tiana Cachini씨는 “우리 인디언은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지내 왔지만 이제 의미 있는 하루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인디언들은 우리의 전통을 배우는 노력을 해야하며 오늘의 변화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라고 우리는 늘 말해 왔습니다.” 라고 했다.

2009년 Miss Zuni에 뽑혔던 Cachini씨는 그의 재학시절 반 친구들이 원주민 친구를 접할 때 인디언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갖고 대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Christopher Columbus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유럽 탐험가들이 북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이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고 했다.

산타페 주의원 렌테 (Lente)와 안드레아 로메로 (Andrea Romero)에 의해서 발의된 법안이 주 상원에서 통과하여 뉴멕시코의 콜럼버스의 날을 공식적으로 원주민의 날 (Indigenous Peoples Day)로 대체했다. 이 같은 변경을 한 주는 뉴멕시코주 외에도 미국 내에 10여 주가 된다.

이로써 1937년부터 연방공휴일로 제정된 콜럼버스 데이가 뉴멕시코에서는 그 이름이 원주민의 날로 바뀐 것이다.

이름변경은 되었지만, 공휴일은 계속된다. 이 변경은 수백년간 유럽인의 정복자의 시각에서 써온 역사를 원주민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평가하는 계기로도 보인다.

참조 기사: NM celebrates inaugural Indigenous Peoples Day by Theresa Davis, Albuquerque Journal, 10/14/2019 ■

화이트 샌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나?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White Sands National Monument)는 수주일 안에 뉴멕시코주에서 두 번째 미국의 국립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예산책정과 관련이 있어 이를 위한 개정안이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법안에 올려져 있다.

뉴멕시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스몰(Xochitl Torres Small) 미 하원의원은 “우리는 그 개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법안으로 통과되면 화이트 샌드는 국립공원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p. Xochitl Torres Small

미국 상원의원 마틴 하인리히의 대변인인 애런 모랄레스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경영면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원 입장료와 여행자에게 공개되는 범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변화는 연방정부 지원, 직원채용 옵션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고 모래의 본거지다. 공원의 면적은 275 sq mi로서 한국 서울특별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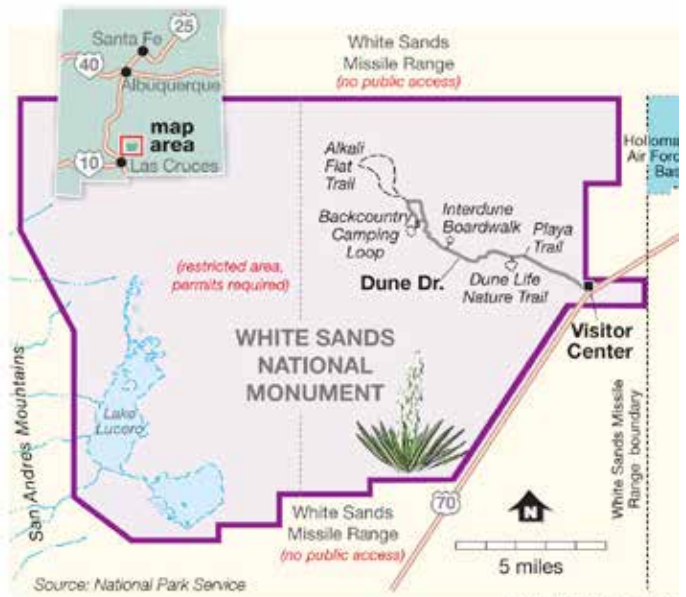
면적보다 41 재곱마일 더 넓다. 국립공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6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지역 경제에 3천1백70만 달러의 경제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화이트 샌드 모뉴먼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를 찾아보면 한글로 읽어볼 수 있다. 인터넷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ko.wikipedia.org/wiki/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 ■

Oliver Kuang군 세계청소년 암벽등반대회에서 2등

한국/중국계 알버커키 학생 Oliver Kuang군이 이태리 Arco에서 지난 8월 22-31일에 열린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IFS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 Climbing)에서 주최한 2019년 세계청소년 암벽등반대회(World Youth Championships)에 미국대표로 나가서 Youth B 급(14-15세) 종합성적에서 2위를 차지했다. 종합점수는 Lead, Speed, Bouldering 세가지 종목성적을 합해서 평가된다. 올리버 학생은 Speed 에서 2등, Bouldering 에서 7등, Lead에서 28등이었는데 종합점수로 2등이 되어 은메달을 받았다. Oliver Kuang군은 알버커키 아카데미 10학년 학생이며 어머니는 제인 리, 아버지 Dr. Wayne Kuang씨는 중국계 아메리칸 Medical Doctor이신데 Urology전문의 이시다. 알버커키에 사시는 이병현씨, 남명순 씨 내외의 외손자 이다. 올리버학생의 대회참가를 지원했던 인공암벽등반(Sports Climbing)체육관, Stone Age Climbing Gym에서는 올리버의 우승을 축하하면서 그의 경기결과를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



아마존, 스페이스엑스 우주 인터넷 경쟁

아마존(Amazon)과 스페이스엑스(SpaceX)를 위시한 다수의 회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 인터넷 체계를 구성하여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우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금까지 약 1만3천 기의 저궤도 인공위성을 승인했다. 최근 스페이스X는 1584기의 Starlink 위성을 550km 고도의 궤도에 올릴것을 신청했고 앞으로 전세계를 커버하기 위해 12,000기의 위성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아마존도 3,236기의 저궤도 위성을 올려서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할 카이퍼(Kuipe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마존사의 최고경영자 제프 베저스는 시골이나 오지의 어느 곳이든지 광대역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의 계획은 3천236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366-391 마일 고도에 쏘아 올려 98개의 궤도를 돌게하여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되는 30억이 넘는 인구가 인터넷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지역을 커버한다면 엄청난 시장이다.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지고 원거리 의료서비스라든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서비스 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우주개발업체인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첫 통신위성 60기를 실은 '팰컨9' 로켓을 쏘 올렸다. 스페이스X는 조만간 6 차례에 걸쳐 위성 60기씩 추가 발사하고, 이번에 쏘 올린 60기를 합친 420기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 측은 이르면 내년을 우주 인터넷 출범 시기로 잡고 있다.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서 스타링크 첫 위성 60기를 실은 '팰컨9'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이미 가동 중에 있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로 HughesNet와 Viasat가 있다. 이들은 2만2천 마일 고공에 올린 정지위성을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정지위성은 저궤도 위성보다 상당히 비싼 거대한 위성이며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 이점이 있지만, 서비스 가격이 비싼 관계로 많은 고객을 갖지 못하는 흠이 있다.

아마존과 스페이스X가 계획하는 통신방식은 다수의 소형 위성을 낮은 궤도에 올려서 인터넷망을 구성해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저궤도 위성은 대략 90분마다 1바퀴씩 지구를 돌게 된다. 통신을 맡아서 하던 위성이 지평선에 근접하면 신호 송신 책임을 다음 위성에 넘겨주는 릴레이(교대)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지역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많은 위성이 필요하다. ■

참고기사: Can a new space race connect the whole world to the internet?, Albuquerque Journal, September 24, 2019.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지역사회

뉴멕시코주, 내년부터 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되나?

미셸 루한 그리샴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지난 9월 뉴멕시코 주 의회는 뉴멕시코주내의 29개에 이르는 2년제와 4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를 전액 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지사의 말에 의하면 뉴멕시코 거주자에 한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욕주 등 미국 일부 주들이 저소득층 학생 들에 한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학비 전액을 지원하여 등록금 없는(Tuition-Free) 대학 교육제도로 전환한다는 획기적인 제안이 나온 것은 미국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관련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가을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주 의회 역시 공공 교육 투자에 적극적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샴 주지사 측은 무상 대학 교육으로 5만 5,0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연간 2,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예산은 지역 내 셰일오일 생산 붐으로 늘어나는 주 정부 수입에서 끌어오겠다는 계산이다. 텍사스와 뉴멕시코에 걸쳐 있는 퍼미안 분지는 미국 최대 셰일 유전지대다. 그리샴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일 붐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뉴멕시코주의 경제가 성장하고 주민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뉴멕시코주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의 셰일오일 생산량을 보면 텍사스, 노스 다코타에 이어 뉴멕시코가 세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주가 되었다.

자료: Press Release from Office of the Governor, “Gov. Lujan Grisham announces plan to make college tuition-free for New Mexico students”

<https://www.governor.state.nm.us/> ■



지역 경제를 돕고있는 커트랜드 공군기지

커트랜드 공군기지(Kirtland Air Force Base)가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 밝혀졌다. 데이빗 밀러 대령이 커트랜드공군기지에서 조사한 공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2018년도 회계년도에서 46억불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6년에 비교할때 12.6% 더 높은 값이다.

밀러 대령은 말하기를 이같은 증가는 기지내의 건설과 기지밖에 다운타운에 있는 공군연구소 소속 사무소등에서 필요로하는 직원 채용이 늘어난 까닭이라고 했다.

공군 기지내에서 일하는 인력을 보면 샌디아국립연구소를합쳐서 볼때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2만3천명의 인원이 일하고있다. ■



커트랜드 공군기지의 71특수작전비행대에 소속되어 있는 V-22 오스프리(Osprey)는 수직이착륙과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가진 비행기이다.



Kirtland makes up 10% of local economy
GDP for ABQ metro area for 2017: \$44,051,000,000
Workforce: 23,000 employees, 24,000 retirees
Annual payroll: \$2,272,178,202
13% of area jobs attributed to Kirtland
Small business contracts: \$115 million
Minority business contracts: \$89 million

Source: Kirtland Air Force Base

걷 기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 걷기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걷기에는 생명력을 강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서, 걸으면 누구나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을 보게 해주기도 한다. 걷다 보면 어느새 여유가 생겨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그저 무심히 바라보던 것들도 새삼 알아차리게 되고는 한다.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여행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은,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을 걸어가노라면 흔히 어려움도 만나듯 사는 데도 고난이 따른다는 말일 터.

세상을 여행하는 방법이면서 마음을 여행하는 방법이기도 한 걷기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다. 걷기가 취미가 된 것은 1770년대 후반으로, 길을 내어 교통이 원활해진 다음에 일어난 현상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영국의 지식인들과 성격이나 말 또는 행동이 별난 사람들이 마음에 끌려 일정한 방향으로 쏠리는 흥미를 느낀 나머지 걷기를 취미로 삼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거나 좋은 경치를 즐기려고 걸었을 수도 있지만, 걷기가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쉬운 것임을 차차 알게되면서 여러 가지에 사용하게 되었다. 대화, 의식, 명상, 놀이, 운동 등에 두루 이용되었으며, 날마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내 인생은 논두렁길에서 시작되었다. 길지는 않았으나, 쏘다니며 자연과 하나 되어 누렸던 어렸을 때의 그 목가적 평화를 칠십 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한다. 그 때를 가끔씩 되돌아 보면 마음속에 일었던 주름살 같은 잔물결까지도 말끔히 가라앉는다. 나는 참으로 많이 걸었다. 걷기 자체가 놀이의 한 가지이었던 것이다.

틈만 나면 넓은 들판을 아무 데나 마구 돌아다니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하는 척하려던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특히 좋아하는 길은 눈 덮인 들길이었다. 나는 함박눈을 사랑했다. 함박눈이 내린 뒷날 아침은 흔히 화창하다. 눈 위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기는 재미는 자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추운 줄도 모르고 한없이 걷다가 얼굴이 새파래져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릴 적에 든 버릇이 등산으로 이어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때가 있었다. 사십에 시작되어 정년 때까지 계속되었다. 전남 산악회에 들어, 좋다고 알려진 산을 찾아 전국을 누볐다. 주말이면

반드시 배낭을 매고 하루를 걸어야 다음 한 주를 무난히 지낼 수 있던 때였다.

대보름날이면 백무동 민박집에서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끓여 먹은 다음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다가 한신 계곡을 타고 내려오거나 칠선 계곡을 타고 실상사를 거쳐 인월로 내려오고는 했다. 별천지 청학동에서 하룻밤을 묵고 백무동까지 걷기도 여러 번이었다.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올라 세석 산장에서 새우잠을 자고, 다음날 천왕봉을 거쳐 중산리로 하산하는 지리산 종주는 체력과 의 싸움이었다.

어느 해던가, 무등산에 함박눈이 쏟아진 다음날이었다. 산장까지 가는 버스가 끊겨서 산을 타려면 천생 길을 수밖에 없었다. 집을 나서서 바로 산길로 접어들어 장원봉에 올랐다. 걱정하고 바람재 중머릿재 새인봉 약사암의 먼길을 내쳐 걸었다. 등산객을 만나기 힘들어서, 중머릿재에서 만난 젊은이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걷다가 약사암에 이르자, 어디서부터 걸었느냐고 묻기에 대답했더니 대단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퇴직하고 미국으로 옮겨와 한갓지게 살고 있다. 건조한 고지 사막 지대의 조용하고 신선한 분위기가 걷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시장철 걷는다. 나도 가끔은 그들과 어울리지만, 한가히 시가지를 이리저리 어슬렁거릴 때가 더 많다. 아침 낮 저녁 아무 때나 집을 나서서 매번 정해진 길을 따르기도 하고, 주택가를 발길 닿는 대로 걷기도 한다.

산책은 걷기의 한 종류다. 한가하게 이리저리 거니는 산책에는 느리고 품위 있는 움직임이 있고, 사교와 과시도 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방법이며, 되풀이하여 지나거나 한 바퀴 도는 것이어서 순환적이라고도 한다. 풍경은 갈 때와 올 때가 같을 수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 도시의 산책은 산만하기 마련이지만, 흔히 만남과 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내게는 작품을 구상하는 데에도 적잖은 도움을 준다.

산책은 한가로운 관광이다. 겨울이 생겨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즐기려면 자유로운 시간과 갈 곳이 있어야 하며, 병이 없는 육체도 필요하다. 독립심의 상징이랄 수 있는 혼자만의 산책은, 기분을 전환시켜 잠시나마 사람을 사회 밖에 머물러 있게 한다. 많이 생각하게 해주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며, 자기 자신을 알게 만든다. ■



다국적 교회 우리교회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지난 주일(10월 20일) 참으로 소중한 다섯 분의 미얀마 크리스천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미얀마” 하면 옛날에는 “버마”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나라입니다. 태국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이지요. 태국이나 미얀마나 모두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의 방콕을 방문했을 때 경험입니다. 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불야성을 이루다가 아침만 되면 쓸쓸한 거리에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맨발로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미얀마에서는 가족 중에 첫 아들은 절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금으로 덮여놓은 불교 탑들이 세워져 있어서 불교인들에게 미얀마는 성지와 같이 찾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얀마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한승우 전도사님의 소개로 지난 10월 15일 미얀마에서 오신 리안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안 목사님은 미얀마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침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2년 10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수요 새벽예배와 저녁예배에 말씀해달라고 부탁하자 흔쾌히 현지 사진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한국말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은 우리 교인들이 예고 없는 선교 헌금에 동참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2,640불을 리안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미얀마는 여러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족들 간에는 서로 다른 여러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친(Chin)족이라는 부족은 92퍼센트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부통령은 친(Chin)족 출신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지요. 불교국가 미얀마 안에 소수 민족인 친(Chin)족은 한 때 정부로부터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Chin)족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미국에도 난민으로 들어온 미얀마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들은 친(Chin)족 기독교인들로서 미국 대도시에서 모여 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요. 리안 목사님의 일정은 콜로라도, 아이오와, 플로리다 등에 있는 주로 미얀마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리안 목사님은 알버커키에 사는 미얀마 크리스천 “싱” 형제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자동차로 리안 목사님 숙소에 태워드렸더니 집으로 잠깐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더니 싱 형제 부모님들이 방문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싱 형제 부모님들도 신실한 미얀마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얀마 간호사이셨고 아버지는 은퇴 후에 미얀마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기도를 할 때 싱 어머니는 잠깐 기다리라며 방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신 후에 기도에 동참하셨지요. 집 안에는 골로새서 3:23절 성경구절과 함께 영어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사업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쓴 액자가 거실 가운데 붙어 있었습니다.

싱 형제는 미얀마에서 난민으로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알버커키에서 약 7년 정도 자신의 형, 동생, 동생의 남편과 친구 등 다섯 명이 “OUMI Sushi”라는 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알버커키에 있는 모든 Sprouts Farmers Market 코너에서 스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우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은 한인 연합감리교회인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인, 중국인, 흑인, 백인, 나바호 인디언, 미얀마인 등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에는 중국인 장로님, 중국인 권사님, 미국인 집사님 등 여러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주일 예배 후에 식사시간이 되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조금 등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미국인 사모님, 일본어를 하는 미국인 루터교 목사님도



미얀마의 리안 목사

계십니다. 그래서 공식 예배나 모임에서 영어 통역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요. 주중 새벽예배에도 영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통역에 수고해주시는 김미경 권사님, 마이클 전도사님, 박광중 집사님, 황경희 집사님, Jonathan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구건호 형제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미얀마의 교우님들

한인교회소식

갈릴리 장로교회 김민순 목사 소개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6일 주일부터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민순 목사입니다. 알버커키의 갈릴리 장로교회는 세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5년 전 2014년 여름 휴가차 산타페 지역을 방문했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은 8월 25일 주일 설교차 방문했고, 세 번째 방문은 10월 6일부터 갈릴리 장로교회 5대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왔습니다. 그레그 모텐슨이 쓴 <세 잔의 차>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잔의 차를 발트족과 같이 마시면, 당신은 낮은 사람이다. 두 잔의 차를 같이 마시면, 당신은 귀한 손님이다. 세 잔의 차를 같이 마시면 당신은 가족이 된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죽기까지도.” 5년 전 갈릴리 장로교회에 처음 방문은 낮은 이방인으로, 두 번째 방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손님으로 방문했다면, 세 번째 방문부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가족으로 왔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립니다. 저는 1972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2006년 미국 칼빈신학교로 유학 오기 전까지 수원에서만 자라고 살았습니다. 수원의 기독교 학교인 유신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수원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에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스 7:10)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8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M.Div.)에 입학해서 신학과 경건, 그리고 사역의 훈련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성경 연구, 신학 훈련, 제자 훈련, 선교 훈련 및 종교 개혁을 비롯한 기독교 역사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 종교 개혁과 기독교 역사에 대한 더 깊은 관심 속에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미국 초기 뉴 잉글랜드 청교도 지도자인 존 코튼의 교회론으로 논문을 쓰면서 신학석사 (Th.M.) 과정을 졸업을 하였고, 지도 교수님의 권유와 추천으로 2006년 가을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에 위치한 칼빈 신학교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하여 종교개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Dr. Richard Muller 교수님의 지도로 역사신학 신학석사 (Th. M.) 과정과 박사 (Ph. D.) 과정에서 역사신학 전반의 교리와 신학과 16세기 종교개혁과 17세기 후기 종교개혁사를



김민순 목사와 김영주사모

공부하면서 신학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 훈련과 아울러, 1991년부터 주일학교 및 청년 사역을 시작한 수원 제일교회에서 고등부 교육 담당 전도사로 청소년 사역, 교도소 및 병원 전도사역과 청소년 설교를 담당했고, 1998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수원 동산 교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청소년 및 청년 사역, 장년 사역, 교사 교육 등 교회의 전반적인 성경공부, 훈련과 교육, 설교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2002년 10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수원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은 이후에 수원 새빛교회에서 부목사로 4년을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 교구 사역, 교육 위원회 사역, 행정 등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전도, 양육, 훈련, 행정 등 다방면에 걸쳐서 체계적인 훈련과 사역을 경험하였고, 수원 지역 교회 연합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원지역 청년 연합모임 (ZGZG: Zeal for God and Zeal for Generation)’을 섬기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 세미나 개최, 청년 전도 축제 및 화요 영성 모임을 통해서 수원 지역의 청년들을 훈련시켜 각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군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2008

년부터 10여 년 동안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장로교회와 디트로이트 한빛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년 사역과 미시간 청년 연합사역, 제자훈련 사역, 선교 사역, 여성, 남성사역, 시니어 사역과 설교 사역을 감당하였고, 미시간 교회협의회에서 교육부장으로 청소년 여름 수련회, 청년 연합 수련회, 목회자 교육 및 세미나 과정을 인도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저의 가장 작은 바람이 있다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사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선교 사역을 했고,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를 말씀으로 양육했으며, 자기의 집을 가정 교회로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의 작은 사역을 통해서 이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양육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족으로는 아직 미시간에 있고 2020년 여름에 이사를 할 계획에 있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 결혼한 지 21년째인 아내 김영주와 미시간에서 대학 1학년이며 정신과 의사가 되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김가영 (Gloria)과 9학년에 재학 중인 밝고 명랑하고 사람 사귀길 좋아하는 ‘권사님’

<12페이지로 계속>

창립주일에배 설교
(녹취 요약)

치유가 있는 교회

(본문:에베소서 4:25-32)



정용치
알버카키연합감리교회
초대목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실어주는 마차와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교회보다 더 귀중한 선물이 있을까요? 37년전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도록 성장해온 점에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이민교회는 신앙공동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생활 정보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주중에는 미국 사회에서 살다가 주일에는 한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나누고 필요한 생활 정보도 주고받는 생활공동체적인 요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 가 훨씬 높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는 예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간지에 나온 칼럼에서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오신 분이 미국에 있는 동안 한인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안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며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주어야 하는데 치유 받아야 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가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영적으로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린다고도 말한답니다. “가나안”을 뒤집어 말하면 “안나가”, 즉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는 질문에 관심을 두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혀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3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안에 내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4장 2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에베소 교인 중에는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을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교인도 있었나 봅니다. 에베소 교회야말로 이상적인 교회로 알았는데 이렇게 밑바닥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어떤 교회든지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선교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한 일이 허다합니다. 중세의 교회 역사를 보면 창피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병원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누가 5:31)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치료받으려고 찾아옵니다. 이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삶의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교인들을 걸로 볼 때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인들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자가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까? 우리를 실망케 하는 교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아픈 사람이 오듯이 교회에 온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이 오는 곳이라는 이해를 갖은 눈으로 보면 연민을 가지고 이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교인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희망을 품고 살 게 되는 치유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노력도 해야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권면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10페이지에서 계속>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첫째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 병원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어찌 될까요?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친절을 베푸듯이 교회에서는
교우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도 중에 단점이 보이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고 탓하기보다는 눈감아주시고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나오는 교인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안내위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니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 된다”라는 말을 교회의
표어로 삼고 있는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32절에서 말씀한 대로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환자입니다. 피차에 서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손 내밀고 격려하고 칭찬하여야 합니다. 남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칭찬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2:3)
에서 “아무 일에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보통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태여 낮추려 하지 않아도 남을 높여주면 자연히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돌로 쳐야 하느냐? 란 질문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라고 답한 예수님의 위대한 품성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8:22에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위에 싫어하는 미운 사람이 없나 물어보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보다 더
좋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묘약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보너스로 말씀드립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참으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말과 언어 때문에
인류는 지적 문명을 쌓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인해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속담에 보면 “말로 천 냥 빚도
갚는다”라는 좋은 말이 있는가 하면 “말로 사람을 살리고

별명을 가진 김가은(Grace)과, 미시간에서 태어난 4학년인 막내
김동률(Ezra)이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2019-2020년 학년을 잘
마무리 하고 가은이와 동률은 아름다운 알버커키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방문이어서 그런지 알버커키가 저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광야와 같은 황량함이 느껴졌다면, 두 번째
방문에는 산디아 산 정상에서 바라본 알버커키가 마치 노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곳 알버커키는 저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으며,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알버커키 지역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세우며, 우리 알버커키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알버커키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신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땅입니다.

교육과정

1988-1991년 수원 유신고등학교 졸업
1991-1998년 서울대학교 학사 (B.S.) 졸업
1998-2001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M.Div.)
졸업
2004-2005년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 신학 석사 (Th.M.) 졸업
2006-2012년 미국 칼빈신학교 역사신학 석사 (Th.M.) 졸업
및 박사 (Ph.D.) 수료

사역경력

1991-1998년 수원 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 및 고등부
교육전도사
1999-2001년 수원 동산교회 교육전도사 및 강도사
2002-2006년 수원 새빛교회 부목사
2008-2018년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부목사
2019년 디트로이트 한빛교회 부목사
전화: 505-975-0322, 이메일: mskim31@gmail.com

죽이기도 한다”라는 무서운 면을 말해주는 속담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메터
(잣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덕을 세우고 은혜 끼치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관찮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문화가 가득 찬 교회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운 문화를 개선해 나가서
더 좋은 “치유가 있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취/요약: 편집부 이경화)

(편집부 Note: 이상의 설교말씀을 녹화한 동영상을 유튜브
(www.youtube.com/kumcabq/)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는 링크: <https://youtu.be/cmXrFIJeWTQ>) ■

수필

바위틈 씨앗 한알



김은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Colorful Colorado라 일컫는 콜로라도에서 30여 년을 거주했다. 남편의 정년퇴직과 아울러 우리 부부의 노후를 안락하게 지낼 곳을 찾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내가 찾던 집을 온라인 속에서 만났고, 마치 꼭 가야만 할 것 같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뉴멕시코로 이사를 하자고 했다. 뉴멕시코엔 절대 올 마음이 없던 내가 이사를 하자고 하니 남편은 짐짓 놀라워하며 내가 간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좋다 하여 일단 집을 보러 오기로 했다. 제2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뉴멕시코 땅에 발을 딛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모래 터에 나의 꽃사랑이 집착이랄 만큼 꽃을 심고 또 심었다. 2년 동안 한여름 기온이 100도가 되는 뽕약밭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장미 120여 그루 정도를 심었고, 그 외 여러 종류의 나무 등 식물들을 심었다. 정성과 인내로 키워내니 너도나도 앞을 다투며 아름다운 색채를 쏟아낸다. 이 척박한 땅에서도 내 손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퇴직 후 추구했던 그런 삶을 살면서도 때론 웬지 모를 아릿한 공허함이 밀물처럼 몰려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40 몇 년 만에 교회를 찾았다. 오랫동안 어느 누구의 전도에도 귀를 막고 살았었는데, 아마도 내 맘속의 헛헛함이 나를 드디어 교회로 끌어냈었던 건지.... 요즘 들어 주님께서 이 멕시코 땅이라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보곤 한다. 돌이켜 보면, 내 가슴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 품에 안길 거라며, 그 '언젠가' 라는 오늘을 기다렸었던 건 아니었을까? 친정 식구들이 가톨릭 신자여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나는 신생아 때에 이미 세례를 받았고 유아 때 첫영성체도 받았다. 제법 규모가 큰 성당에서 회장직을 맡으셨던 친정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싫어도 싫은 척도 못 내고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의무적으로 성당을 나가고 교리를 배웠었다. 참으로도 궁핍했던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 속에 친정아버지는 열심히도 사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간절한 간구에도 젊은 나이에 지병을 얻어 52세 되던 해에 주님을 원망 한번 안 하시고 주님 곁으로 바쁘게도 달려가신 아버지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신 후, 우리 집 식구 어느 누구도 성당에 나가라고 더는 나에게 강요를 하지 않자 아버지의 완강에 못 이겨 그렇게 등 떠밀려 다니던 성당에 등을 돌리고 살았다. 단 하나뿐인 자식 외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29세 청춘과부셨던 할머니의 애끓는 통곡 소리는 몇 날 며칠을 두고 이어졌다. 그때

난 어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어린 나이에 결혼과 아울러 미국에 들어와 소도시 변두리에 살면서 개척교회에 몇몇 안 되는 한인들과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교회 생활을 했다. 오랜 세월 이미 너무 멀리 떠나 와 버린 주님의 품이었을까?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다니니까, 짧은 날들을 교회 생활을 하는 척 하다가 결국 또 등을 돌리고 바쁜 삶의 수레바퀴에 치여 살다 보니 이미 육십 중반의 시들어 가는 노년의 모습으로 남았을 뿐.... 무언가 삶의 일부를 빠트리고 살아왔던 지난날들, 처음으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 나갔을 때 일단 한번



나가보고 마음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적마다 무료함에 별다른 느낌을 못 받곤 했었는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의 김기천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리 가슴에 와 닿았을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귓가를 맴돈다. 그랬다, 나는 바위틈에 떨어진 작은 씨앗 한 알이었었음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었다. 나의 믿음이 기름진 옥토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 아닌 바위틈새에 떨어져 오랫동안 싹을 틔우지 못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 알의 씨앗으로 더디 싹을 틔울지라도, 나! 이제 바위틈새라도 비집고 나와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졌던 주님의 품에서 새로이 피어나고 싶다. 우린 역시 나약한 인간이기에 어디엔가 비비고 기대어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서 내가 등을 기대 곳은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시기에 앞으로 꼭 힘든 일이 생길 때만 찾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닌 슬프고 기쁜 일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과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오늘도 기도해 본다. 교회를 나가면서 나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다. 사실 한인들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예전과 달리 간혹 한인들을 만나면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기도 하고 나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한다. 오랜 시간

서신

사랑하는 알버커키 형제 자매님들께!

부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작열하는 알버커키 태양보다 더 뜨거웠던 2019년 여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23도 45' 기울게 하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며 공전케 하시어 신실하시게도 계절을 바꾸시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 이옵니다.

요즈음 여기 뉴저지 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지난여름의 알버커키 열기를 알기라도 하는 듯 제법 빠알강게 그리고 노랗게 토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Hudson 강변의 장관 속을 산책하며 기쁨을 나누는 꿈도 꾸어보면서 바람의 고장 알버커키에도 이제는 가을바람이 힘차게 불겠지...생각하니 더욱 여러분 한분 한분이 그리워집니다.

사실 저는 지금 한국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제자 중 한 사람이 “교목”으로 봉직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립 중학교에 가서, 한 달간 1)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2) 부흥성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눈 코 뜰새 없이 준비하고서 한국행에 올랐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들고 갑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계실 줄 믿고 갑니다. 제가 이 거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임을 익히 알고 있으나, 주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합니다.

마치 알버커키 교회의 초청이 주님의 명령으로 느껴져 그저 순종하여 지난여름 알버커키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달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일생 중, 2019년의 알버커키 열기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더욱 더 값진 것이며, 승리는 순종할 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부산물과 같은 것임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알버커키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알버커키 자매들이여!

부족하고 나이 많은 저를 갈렙같이 사용하시어 “높고 귀하신” 하나님 뜻만 그저 전하라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한국으로 달려가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지칠 줄 모르는 주님의 열정이 제 마음속에서 용암처럼 솟구치는 불평이가 되어서 이름도 없는 한 시골 중학교를 성령 불로 태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드립니다!.

“주여! 지난여름의 열기를 다시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알버커키에서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이 조그만 시골 학교도 성령으로 뜨거워 지지만 한다면 주님의 위대한 일꾼을 배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알버커키 형제자매들이 동역의 달인, 사도 바울같이, 기도의 동역자 되게 하사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시고, 기도의 대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여!

저는 지금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 까지)을 부르면서 한국 땅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By His counsels guide, uphold you,

with His sheep securely fold you: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Till we meet, till we meet,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뉴저지에서,

부족한 섬김이 나정용 올림 ■

바위틈 씨앗 한알 <13 페이지에서 계속>

마음의 빗장을 닫고 살아왔던 나의 빗장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나 보다. 이제 나의 웬지 모를 공허했던 가슴의 빈터에 “역시 그분 하느님이 존재하시기에!...” 더 없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다. 또한 46년의 세월을 함께 해준 나의 동반자(남편), 그리고 좋은 지인들과의 만남을 배려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이 몽글몽글 영글어 간다. 나의 정원에 꽃 한 송이

두 송이 피어날 때마다 자연의 이치를 창조하신 경이로운 주님의 작품에 감격하며, 나 혼자 피워낸 것이 아닌 “주님의 정원에 나는 정원사,” 주님과 나의 합작품 (함께라는)이라는 진리의 깨달음도 알게 된 것이다.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 주님께서 항상 가꾸고 계신 아름다운 그 화원에 언젠간 나 또한 빛고운 한 송이 꽃(믿음의 꽃)으로 피어나고 싶다. ■

선교/수필

나바호 선교



이래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찬양팀

3개월 전까지 거주하던 San Jose에서 출석하던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매년 연말에 나바호로 단기선교를 하러 갑니다. 제가 그 교회를 출석 하던 중 두 번 정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제 아들 용석이가 방학을 맞아 집에 오는 기간이라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올여름에 San Jose 를 떠나 이곳 Albuquerque로 이주하게 되면서 저는 나바호는 인연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뜻 밖에도 올해 가을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나바호라는 명칭은 대략 10년 전 보았던 Nicolas Cage 주연의 Wind talker라는 영화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간략한 내용을 보면 미군이 2차 대전 당시 전투 중에 일본군에게 도청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어와 나바호 언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하는 나바호 청년들을 훈련시켜 실제 전투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 중 나바호 언어로 아군 사이의 무전기 통신을 담당하게 되며 일본군의 도청을 막아 전술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여 미군의 큰 승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바호 행사 장소인 Chapter house에 걸린 Veteran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분들이 내가 보았던 영화 속 장면들의 실제 주인공들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3시간여를

달려 현지에 도착한 후에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불고기, 밥 그리고 굴로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역할대로 Youth team, Young Navajo 그리고 adult team으로 나뉘어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adult team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즐겁게 Navajo 분들과 게임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에 찬양 시간이 있어서 중앙 화면에 가사를 미리 올려놓아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쉽게 연결이 안 되었고 또 가져간 제 laptop 컴퓨터는 원래 멀쩡했는데 그날 갑자기 작동 속도가 거북이처럼 느려지더니 급기야는 행사 시작 시간이 되어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져간 laptop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 켜도 작동하지 않았고 예정된 시작 시간보다 10여분이 지난 상태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Navajo 분들이 찬양을 같이하지 못 하게 되고 선교 행사의 일부분이 엉망이 되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고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스스로에게 좀 화가 났습니다. 겨우 그때에야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 이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분 후 드디어 laptop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큰 문제 없이 찬양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2019년 나바호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도 laptop은 스스로 고쳐졌을까 스스로 물어 봅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당시 그것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당장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때 laptop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계획으로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10월20일 ■



아름다운 퇴장을!

'My waterboys!' 스페인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면서 물통 들고 가는 작은 아들 뒤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제법 단단하고 길쭉한 다리의 아들들이 사랑스럽고 많이 듬직하가 보다. 미술 교사로 일하는 딸아가 여름방학과 자기들 결혼 20주년 행사로 스페인을 여행하는 중이다.

어느덧 세월도 많이 지났고 많이 컸구나 싶는데, 처음에 낯설고 몰선 이곳 미국으로 유학오는 유학생의 딸, 아들로 등 가방 달랑 메고 가족 소풍 가듯 따라왔던 아이들이 이제 이 나라 미국인이다.

'그래 오늘 학교에서 무얼 배웠니?' 뉴저지 매디슨 두루 신학교 기숙사에 얼떨떨과 함께 짐을 푼 우리 네 식구는 말 그대로 똥똥 뭉쳐진 한 덩어리! 하루를 지낸 저녁이면 우리 네 식구 모두는 다음날을 준비하며 마치 '비상 대책 회의'를 하듯 했다.

영어 회화를 가르치며 'how are you?'를 묻는 Mrs. Myers에게 교과서 대답대로 'I'm fine, thank you' 하면 될 것을, 항상 'I'm no fine, no fine!'을 잠꼬대 같이 읊어 댔다는 딸아이는 학교에서 얼굴이 노오래져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구 구역질하기가 일수였고 작은 아이는 '그래 학교에서 오늘은 무얼 배웠니?' 하면 늘 자고 왔단다.

그런 한동안을 지나던 중, 둘째가 'Sammy had a super day, today!'라고 쓴 작은 스티커가 붙은 카드를 받아 가지고 왔다.

사연인즉 오늘 'may I go to bathroom?' 병어리 인줄 알았던 아이가 입을 열어 선생님께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밤낮 누어 골골하던 할배가 집에 큰불이 나자 아뽀싸! 번쩍 쌀가마를 들쳐메고 나왔다던가. 학교 가서 매일 자고 온다던 긴장 속에서 꼭 붙어버렸던 입이 얼마나 급했으면 스티커 카드를 물고 오게 되었던 것일까!

또 두어 달 지나자 큰아이가 가을 음악회 때 합창 반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토리 제이 초등학교에 그렇게 그렇게 마음을 붙이면서, 한쪽 눈이 거의 찌그러질 정도로 노다지 왕크로 다가오는 Dr. 뉴 하우스 교장 선생님께 나도 얼마나 재빨리 번개 같은 '눈인사만! 대화는 사절!' 하며 숨을 고르곤 했던가!

잠시 잠깐의 만남에서도 그 매끈 매끈한 영어란 게 빨리빨리 나오질 않고 입안에서,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며 명사 동사 형용사 순서 찾아 맞추느라 쭈물거리는 동안 교장 선생님의 왕크는 벌써 저만큼 가고 있었지 않았던가.

그러니 하루 종일을 미국 아이들, 미국 선생님들과 지내다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저녁이면 다시 오리지널 한국인으로 돌아와야 하니 그 이중 문화를 딛고서야 하는 아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바빴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바짝 익어야 먹던 얇은 소고기를 이제 반쯤 익힌 덩어리, 소위 '미디엄 스테이크'를 즐겨 먹고 있는 것이다.

지난(2018년) 추수감사절 때다.

푸근푸근 잘 구워진 칠면조에 새콤달콤한 크랜베리 소스, 노란 파인애플과 계피 향으로 치장한 달큰한 돼지 넓적다리며, 알록달록 샐러드, 피칸파이, 펌프킨 파이며 진한 향기의 구수한 커피등 ... 한참 화려한 감사절 디너를 마치고 둘러앉은 자리에선 그럴싸하게 옛날얘기가 펠러딩 거리기 시작하는데. 4 후반에 있는 딸냄이의 회고였다.

9학년이 되어서 girl's soccer 팀에서 뛰게 되었는데 동양 여자로는 혼자였다. 자기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곳에 가서 시합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다른 애들 엄마들은 미리미리 와서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 아니면 시합 장소까지 와서 응원하며 데리고 가질 않나 여간 열심인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진짜 회고는 이제부터였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라이드는 커녕, 온통 한참 위 언니쯤 될만한 큰 체격의 미국 아이들과 겨루는 축구 시합 마치고 잔뜩 지친 몸을 끌고 집에까지 걸어온 딸에게 들어 단짜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다. 그 축군지 뭔지 고만두라고. 무슨 여자가 축구란 말이나!' 고 야단 야단에 엄한 죄인 치리를 받았었다는 거였다.

그게 그저 문화적인 이해 차이일 뿐 아무런 고의는 없었다는 것은 40대 후반의 그에게나 70 후반의 이 에미의 심중이 똑 같았을 지라도 뭔가 좀 부언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였지만 조금 망설였다고나 할까. 어쨌든 영락없는 Amy Tan의 The Joy Luck Club의 한국판이 여기 지금 우리 집에서 재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딱 이 아이 나이였던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특별활동반인 발레반에서 나는 한참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한쪽 팔로 바를 잡고 서서 반듯이 허리를 펴 세우고 제법 곧게 자란 다리를 굽혔다 뻗어 올렸다 한쪽 까치발로 뱅그르 돌기를 얼마나 했을까... 잘 맞지 않는 연습용 토에 벗겨진

<18페이지로 계속>

영어 이야기 (5)



이상목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19세기 말, 20세기초 대한제국시절 Hawaii로 한인이민이 시작된 이래,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폭 개정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정착을 하게됩니다. 당시에 오신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은퇴자로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70년대 중반 28살때 미국에 온 필자도 어느덧 70이 넘었습니다. 은퇴는 영어로retire인데 물러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러가는 것도 retire를 사용하여, He retired early for the night. (그는 일찍 잠을 자러 갔다) 은퇴자는 retiree이며, 보통 6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 senior(씨니어)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젊었던 시절엔 7, 80대 노인은 남의집 이야기이고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세월은 불췌수없어, 마음은 아직 청춘이지만 이젠 물건을 사도 평생보증이 되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이나 세월을 뜻하는 단어인 “age”를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t age 24 (At the age of 24) she wrote her first novel. (그녀는 24세에 첫소설을 썼습니다), He is about my age. (그는 나이가 나와 거의 같다), Act your age. (나이에 걸맞게 행동해라. 나이값을 해라), He is very mature for his age. (그는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하다), You look you haven't aged a bit. (넌 하나도 나이를 먹은것 같지 않구나 (젊어보인다는 뜻)), There are three signs of old age. The first is loss of memory. I forgot the other two. (늙으면 3 가지 증상이 나타내는데, 첫째는 기억력 상실입니다. 두번째, 세번째는 잊어버렸습니다), the Victorian age or the Victorian era (빅토리아여왕 시대), children of school age (적령기 아동으로, 보통 6~12세의 어린이들을 일컫습니다. 13~19세는 사춘기(adolescent)로 분류합니다), I haven't seen you for ages. (오랫동안 보지못했네), a woman in early middle age (중년초반의 여성), Rock of Ages(찬송가의 만세반석: Ages 는 오랜세월을 뜻하며, Rock of Ages는 영원한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문에서 보듯이 age는 명사, 동사로 쓰이며, 나이, 세월, 시대를 나타냅니다. “Aging”은 명사로, 늙는 과정(노화)을 말하고, 형용사로 사용될때에는 “늙는(growing old)”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the external signs of aging”(노화의 외적징후), “an aging population”(인구의 고령화). 냉난방을 heating and cooling (영어로 냉난방은 난방이 앞에옴)이라 하듯이 동사 age에 “ing”를 붙여 aging은 늙음, 늙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든 모르든 늙어가는 과정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므로 어떻게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있나,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것보다 부러운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든 senior

들도 우선 잘 먹어야 합니다(eat well: nourish). 영양보충 없이는 몸을 지탱할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지만, 과식하지 않고 채소류를 많이 먹되 골고루 먹는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중(weekdays)엔 점심은 주로 Rio Rancho에 있는 Meadowlark senior center에 가서 먹는데, 채소류가 풍부하고, 기름진 음식이 적음뿐 아니라, 양도 딱 맞아, 제게는 dinner 입니다(dinner는 꼭 저녁이 아니더라도 하루식사중 제일 푸짐하게 먹는 식사를 지칭합니다). 사람도 기계와 같이 계속 움직여야, 조금 닳긴해도(wearing out), 고장이 덜 납니다. 우리나라 노인정에 가면, 나이가 많다고 앉아서 대접만 받는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스스로 가져다먹고 치우는것이 건강에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한 매일 산보하는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자는 거의 매일아침 공원과 주위동네를 걷는데, 걸음속도는 그때 그때 조절하며, 한걸음 나아가 길에 보이는 휴지는 주워서(허리운동도 됨) 가지고 다니는 비닐봉지에 넣어 수거합니다. 깨끗한 주위를 보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정신건강인데, 다시 말하면 건강한 두뇌활동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늙어보이는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나이보다 젊어보이려면, 육체적건강뿐 아니라, 건강한 두뇌(healthy brain)를 유지하여야함은 말할나위 없습니다. 은퇴자들중엔 할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분도 있지만, 바쁘게 일에 열심인 분도 많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후에 너무 머리를 써도 뇌건강(brain health)에 좋지않다고 하지만, 모든일에는 중용(moderation)이 좋기에 적당한 머리굴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필자는 “광야의 소리” newsletter에 글을 쓰는 기회가 주어졌고, 나름대로 한국무선연맹에 글을 쓰며, YouTube로 음악도 듣고 한국정세도 보고, 잠자기전에는 Sudoku도 한번합니다. 잠(sleeping)은 그날의 피로와 stress를 없애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쾌적한 수면은 우리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stress조절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으로 뇌건강에 도움을 주는것으로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소통하고 지내는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Skype 나 FaceTime 또는 KakaoTalk를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있는 친지나 친구들과 공짜로 얼굴도 보면서 말하는 시대가

치과 이야기 (6)

치아 미백

윤자정

Los Lunas Smile
NAPA Family Dentistry



뜻깊은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10월, 열기구 축제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치아 미백(tooth whitening)에 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얀 치아는 사람을 건강하게 보일 뿐 아니라 바라보는 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얀 치아를 원합니다. 치아가 불규칙하게 있거나 심하게 변색된 경우에는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고, 심지어 입을 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아 변색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치아의 상아질이 침착되고 법랑질이 얇아지면서 광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심미적인 것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커피, 와인, 카레, 콜라 등 색소가 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흡연 등으로 인하여 치아 표면에 착색되거나 신경이 죽은 치아를 방치했을 경우, 치아 생성기에 약제 복용 혹은 트라우마로 인해 변색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색된 치아는 주로 미백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아 미백(美白)은 미백제의 주성분인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활성 산소가 치아 표면의 법랑질과 그 안의 상아질 침투로 인해 착색된 물질을 표백하는 원리입니다.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신경치료를 먼저 한 후 실활치 미백을 따로 시행합니다. 이때 미백 후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보철적인 방법으로 수복해야 합니다. 신경치료가 필요 없는 생화치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농도와 시술법에 따라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으로 나뉩니다. 전문가 미백은 고농도의 미백제를 치아에 바르고, 미백제 활성을 위하여 특수 광선을 쬐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 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인의 변색 정도에 따라서 3-7일 정도 간격으로 3회 정도 시행하여 주며 대부분 원래 치아 색상보다 2 단계 정도 밝은 치아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가 미백의 경우 개인의 치아에 맞는 틀을 제작한 뒤 틀에 미백제를 도포한 후 매일 4-5 시간 정도 미백틀을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이 두가지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면 보다 좋은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치아 미백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치아 색은 원래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필요하다면 반복 시행합니다.

평소 치아의 착색을 유발하는 커피, 홍차, 와인, 카레 등은 피하거나 섭취 후 바로 양치질이나 물로 헹구어 내는 것이 좋고, 치아 변색이나 치석을 유발시키는 담배와 같은 것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칫솔질을 잘하고 정기적인 치과검진은 물론 스케일링을 권장해 드립니다.

항상 밝고 아름다운 미소가 가득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 퇴장을! <16 페이지에서 계속>

발뒤꿈치는 또 얼마나 쓰리고 아팠던지... 넘어지는게 주제인양 엉덩방아는 또 얼마나 찢던가.

오랜 연습을 통과하고 마침내, 마침내 차이코브스키의 '백조의 호수' 며 '호두까기 인형' ...등에서 착각하리만큼 잘 훈련되어 쭉-욱 뻗는 팔 다리에 천사 같은 새하얀 깃털 날개를 가진 백조로 등장해야 했다. 새하얀 타이츠에 토를 신고 새하얀 깃털을 입은 천사 같은 백조여야 하는데.

발표회 날이 다가왔다. 백조여야 할 내게 이씨조선 유림사상으로 다져진 내 엄마는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없다. 백조는 무슨 백조! 여자가 무슨 무대에 올라서서 다리를 짹짹 번쩍번쩍... 우리 집안에는 그런 것 없다!' 이셨다. 반년이 넘도록 꾸어왔던 발레리나의 백조의 꿈은 그렇게 500년 전통의 유림의 서릿발 아래서 그 날개를 접어야 했었다.

그저 살아온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던 안방마님들의 소견들일 뿐이다. 그럴지라도 그것들이 대를 흐르며, 때로는 그 시대 문화의 증인으로 '어제와 오늘, 어미와 딸, 역사와 문화' 사이를 조명해 보게 하는 것 아닌가!

'엄마, 이 샐러드 괜찮죠? 상큼하죠? 엄마 나물 맛하곤 다르지만.' not fine이 아니라 'no fine'을 달고 다녔던 딸내미의 등장이 대견하기도 하고 신기하다. ■



선교지소식

Mission Together News

(미션 투게더 뉴스/ 의역:함께하는 선교 소식)



이성일

Mission Together 대표
뉴저지연합감리교회

편집자 주 : 이성일 목사님은 본래 필리핀 선교사였으며 연합감리교회 뉴저지 연회 정회원 목사로 리빙스톤 한인교회 소속이고 현재는 순회 선교사로 Mission Together 대표입니다. 이 목사님은 지난 2011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멕시코 교역자 연합회에서 주최한 연합부흥 집회 강사로 오셔서 당시 뉴멕시코 성결교회, 주님의 교회,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세상은 넓고 참으로 할 일은 많습니다. 말레이반도에 포르투갈사람들이 1511년에, 더치 사람들이 1641년에, 영국인들이 1795년에 들어와 다수 종족인 말레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식민지 정부가 1874년 말레이 통치자들과 방코르 조약(The Treaty of Bangkor)를 맺으면서, 무역을 허락받는 대신 지역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목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많은 영혼에 무관심했던 영국 식민지 정부의 결정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무슬리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학교들이나 기관들을 이슬람화 정책을 바탕으로 접수하였으며, 기독교인이나 타 종교인들을 이등 국민으로 강등 시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한때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30%로 축소되었으며, 전체 그리스도인은 9% 정도입니다.

게다가 긴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기독교는 인도인이나 중국인들의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족 목회자들은 성경도 모르고 설교도 제대로 못해 평신도 지도자들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실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놀라고 놀랄 뿐입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목회를 하던 신학생들에게 성경 통독을 얼마나 했느냐는 물음에 한두 사람이 한 두 번 읽었고 나머지는 통독해 본 적이 없으며 평균적으로 기도도 10분 내외였습니다. 오늘 지도자의 실상은 내일의 교회 모습이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뿐입니다.

주일에는 꼬따 끼나발루에서 조금 떨어진 Manggatal 이라는 도시에 있는 Sidang Injil Borneo라는 교단의 교회에서 “Amazing grace enjoying in the process of being made of a pearl” (Matt. 13:45-4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망가탈은 가려움이라는 의미인데, 들의 가려운 곳을 복음으로 긁어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써주신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일 오후에는 선교사님과 더불어 Kasi Sayang이라는 해발 800미터 정상에 있는 찻집에서 커피와 저녁을 들었습니다. 해발 4095미터의 끼나발루 산을 멀리 바라보면서 동시에 꼬따 끼나발루 시내를 내려다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역과 사역 사이 잠깐의 쉼과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화요일 오전에 꼬따 끼나발루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Kota Belud

지역의 Kpg. Taburan이라는 농어촌지역의 7 교회 지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목회자/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이나 예외 없이 도시화 현상의 일환으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만 남아 있었고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농어촌 목회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타파하고, 복음이 주는 은혜 안에서 신앙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찬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과 저녁에는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합세하여 부흥회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인도하여 모기의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고, 때마다 하루에 한 두 번씩 쏟아지는 스푼현상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강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어를 탁월하게 통역하시는 크리스 리 선교사님의 수고를 인해 복음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며, 태국에서의 소식은 10월 11일을 전후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10-4. ■

영어 이야기 <17 Page에서 계속>

아닙니까? 필자는 매주 금요일 senior center의 오후활동중 하나인 Country and Western Music에 나가 두시간 가량 춤(dance)을 추고 오는데, dance만큼 육체적, 정신적건강을 제공하는것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율동에 맞춰 step을 밟는 동작은 에어로빅(aerobic exercise)하는 만큼의 운동효과뿐 아니라, 뇌를 자극시켜 상대방과 서로 반가운 마음이 들게끔 가깝게 만듭니다. Aerobic(에어로빅)은 산소(oxygen)와 관계있는 말입니다. 음악한국이 대개 3분정도인데, 댄스하면서 움직이는 step은 500보가 넘습니다. Line dance를 하는 경우에는 800보(step)도 훌쩍 넘으며 땀도 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일매일 즐겁고 건강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인이민이 시작된 이조말기에 태극기도

덤으로 사는 인생살이 더 많이 웃으며 살리라

연말이 되면 미국에서는 연하장을 보내며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하는데 한국에서는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 하지요. 그런데 영어에 Merry 라는 말하고 Happy 라는 말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한국말의 즐겁다라는 말하고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분들에게 올해에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 새해에도 또 복을 받으라 구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므로 별 신경 안 쓰고 그쪽도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복은 “웃음의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웃는 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것 일까 찾아 본 것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A. 월요일 : 달을 보며 웃는다.
- B. 화요일 : 화끈하게 웃는다.
- C. 수요일 : 수도 없이 웃는다.
- D. 목요일 : 목숨 걸고 웃는다.
- E. 금요일 : 금방 웃고 또 웃는다.
- F. 토요일 : 토실 토실 웃는다.
- G. 일요일 : 일어 나자 마자 웃는다.

그러니까 제 말은 매일 화만 내지 말고 웃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 학자가 발표하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각 사람이 아주 유일 무 이 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웃을 때 상황을 잘 파악 해야 하겠지요. 쓴웃음, 비웃음 또는 만담을 들으며 폭소하는 것, 아니면 배꼽을 잡게 만든다던가, 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하야간 사람이 웃으면 Endorphin이라는 물질이 몸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물질이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데 예를 들면 면역성을 높여주고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이 밖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한다면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웃으면 암도 예방 할 수 있다는 등 “웃어서 남 주나” 라고 꼬집는 이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Entertainer와 comedian 중에 Bob Hope 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잘 웃기는지 나타나서 아무 말을 안 해도 웃음부터 나옵니다. 그는 Guinness World Book of Record에 2000번 이상 The most Honored Entertainer 로 선출되기도 했고 50 개 이상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영화배우로, 댄서로, 연예인으로, 아나운서로, 미군 장병들을 즐겁게 하는 위문단으로 등등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잘 웃기는 명수 이였고 아주 낙천적인 분이였습니다. 또 한 100년을 사셨다니 장수하신 것이지요.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이분은 아마도 많이 웃으면, 또는 많이 웃기면 장수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핏대 내지 말고 심술부리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항상 하하 호호 ---라고 웃으며 함께 삼시다. 그 많은 복중에도 웃음의 복이 제일 큰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뭘니 뭘니 해도 건강의 복이 더 귀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 들은 이 글을 80마일로 후다닥 읽지 마시고 40마일로 천천히 다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시간에 쫓겨 아침 식사를 소홀하게 드시는 분들에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건강 아침 식사 한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QUAKER OATS (steel cut) 에다가 Blueberry 와 PB2 (Powdered Peanut Butter) 를 넣어서 보통불 에 은근히 끓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Health benefits of this oatmeal is more than 8 kinds . So forget them, Just enjoy it.

새해에도 웃음의 복 많이 받으세요 !!! ■

영어 이야기 <19 Page에서 계속>



제정되었는데, 고종때인 1882년 제작되고 1883년에 채택되었는데, 태극문양과 색깔, 모서리의 4괘위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사진은 1893년과 현재의 태극기: 태극문양과 4괘의 색이 다를 수 있음). 4괘는 8괘중에서 4개를 선택한것으로 자연현상의 하늘 땅 물 불, 계절의 춘하추동, 방위의 동서남북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태극기에 관해 설명하고자하면 다음과같이 하면 무난합니다. “The (South) Korean flag was created in 1882. White represents light, purity, and peace. The circle in the middle is called a yin-yang. It is a symbol of harmony. The black bars around the yin-yang stand for heaven, water, earth, and fire. Together, they represent balance in the universe.” (한국의 국기는 188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백색 바탕은 빛, 순결, 평화를 나타냅니다. 가운데의 원(태극)은 음양(陰陽)이라 불리는데, 조화의 상징입니다. 태극주위의 검은 줄은 하늘, 물, 땅, 불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것이 우주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일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미국장로교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Albuquerque)

이명길목사 (505)717-2590(Church), (505)730-3614(hand)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영어예배(1부): 오전 9: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1:00(사택)13804 Spirit Trail Pl.NE ABQ
 목요기도회: 오후 7:00(교회에서)
 주일예배처: 7th-day Adventist Church, 4920 Wyoming NE, Albuquerque, NM 87111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p>알버커키 Albuquerque</p>	<p>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p>	<p>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 식품점 Korean Grocery -----</p>	<p>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p>
<p>건축/페인트 Painting</p>	<p>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p>	<p>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Ste D ABQ (505)766-9405</p>	<p>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p>	<p>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p>
<p>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p>	<p>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p>	<p>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p>	<p>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p>	<p>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p>
<p>공인회계사 CPA</p>	<p>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p>	<p>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p>	<p>----- 월셋방 Room for Rent -----</p>	<p>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p>
<p>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p>	<p>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p>	<p>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ABQ(505-883-3618)</p>	<p>셋방(1) (침대 Furnished) 여자에 한함 위치: Eubank+Paseo del Norte \$500-600 Utility포함 연락처:(505)410-9653</p>	<p>----- 자동차정비 Auto Repair -----</p>
<p>교회 Church</p>	<p>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p>	<p>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ABQ (505-345-0960)</p>	<p>----- 의류 Clothes -----</p>	<p>-----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p>
<p>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p>	<p>부동산 Realtors</p>	<p>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p>	<p>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p>	<p>----- 주택용자 Loan Officer -----</p>
<p>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p>	<p>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p>	<p>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p>	<p>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p>	<p>-----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p>
<p>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p>	<p>사진관 Photo</p>	<p>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p>	<p>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p>	<p>----- 중재서비스 -----</p>
<p>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p>	<p>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 3420)</p>	<p>-----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p>
<p>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4920 Wyoming NE ABQ (505-717-2590)</p>	<p>세탁소 Dry Cleaners</p>	<p>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p>	<p>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p>	<p>----- 컴퓨터 서비스 -----</p>
<p>단요가 Dahn Yoga</p>	<p>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p>	<p>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p>	<p>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p>	<p>----- SH Consulting(이성희) 505-933-9004 Remote/Onsite Computer Support. -----</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티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p>	<p>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p>	<p>-----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p>	<p>----- 치과 Dental Clinic -----</p>
<p>리커스토어 Liquors</p>	<p>식당 Korean Restaurant</p>	<p>-----</p>	<p>-----</p>	<p>-----</p>
<p>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p>	<p>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p>	<p>-----</p>	<p>-----</p>	<p>-----</p>
<p>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p>	<p>-----</p>	<p>-----</p>	<p>-----</p>	<p>-----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p>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
662-9681)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식당
Chinese Restaurant**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e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e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19년 11/12월호
발행일 : 2019.11.9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
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비용은 광고주의 후원으로
 총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뭉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카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크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Korean BBQ

 Lunch
 11:00-2:30 Mon -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4:00-9:00 Sunday
 4214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phone (505) 797-8000
www.abqsushiandsake.com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